

경제

광주 광공업 생산활동 '전국 최고'

작년 4분기 22.5% 증가...자동차·반도체 등 수출업종 호황

자동차와 반도체, 기계장비의 수출 호조로 지난해 4분기 광주 광공업 생산활동이 활기를 띠며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4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광공업생산은 광주가 전년 동기보다 22.5%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경남(18.6%), 경기(17.4%), 대전(17.4%), 전북(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12.4%, 전남 -3.8%, 경북 -3.3%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광주지역 생산활동이 급증한 것은 자동차와 반도체, 기계장

비 등 지역 수출 주도 업종의 호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아차 광주공장이 생산활동과 수출을 이끌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월별 생산 대수를 두달 연속 경신하며 사상 최대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10월 4만2250대를 생산해 2006년 11월(4만3000대) 이후 48개월만에 4만대를 넘어선 월간 생산량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이어 11월에 4만8227대를 생산해 한 달 만에 또 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수출은 전체 생산량의 60% 가량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광주 25.8%, 전남 14.9% 증가했다.

대형 소매점 판매는 광주가 2.1% 증가한데 비해 전남과 전북은 각각 -2.4%, -0.5%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광주(0.3%)의 경우 큰 변화가 없었으나 농림어업·도소매업의 취업이 부진한 전남은 -3.0%, 전북 -0.9% 줄어 들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2분기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2분기에 전년동기보다 2.5% 오른데 이어 3분기 2.9%, 4분기 3.5%, 올해 1월 4.0%로 상승

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 지난해 2분기 2.8%, 3분기 3.3%, 4분기 4.1%, 올해 1월 4.4%로 상승, 전국 평균(4.1%)을 웃돌았다.

건설동향은 전국의 건축착공면적이 -12.8% 감소한 가운데 광주(30.8%)와 전남(21.8%), 전북(51.3%)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광공업생산은 광주(24.5%)와 전북(20.6%)이 20% 이상 올랐고, 전남은 4.3%로 소폭 상승했다.

고용은 광주의 경우 2.6% 늘었으나 전남(-2.7%)과 전북(-1.1%) 줄었다. 수출은 광주(30.4%)·전남(30.6%) 모두 30% 이상 늘어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0일 오후 여수국가산업단지 GS칼텍스 여수공장 영빈관에서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해 허동수 GS칼텍스(주) 회장, 김충석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GS칼텍스 여수제2공장 친환경 고도화시설인 제4종질유 분해시설 건설을 위한 1조10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세 번째부터 허동수 GS칼텍스(주) 회장, 박준영 도지사, 김충석 여수시장 등 참석자들이 투자협약 체결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GS칼텍스, 여수에 1조1천억 투자 협약

전남도와 체결...2013년까지 종질유 분해공장 건설

전남도는 10일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허동수 GS칼텍스(주)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고도화시설인 제4종질유 분해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GS칼텍스(주)는 오는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여수공장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해 제4종질유 분해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GS칼텍스는 이번 공장 증설투자를 통해 ▲감압가스오일 유동상 촉매분해 시설(VGO FCC) 하루평균 5만3000

배럴 ▲휘발유 탈황시설(Gasoline HDS) 하루평균 2만4000배럴 ▲친환경 고급휘발유 제조시설(Alkylation) 하루평균 5000배럴 규모의 생산설비를 확충한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200여명의 일자리와 공장 증설기간 중 연인원 약 130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며 여수지역 내 공장건설, 설계, 구매 등으로 4000억원 규모의 관련 산업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설비 증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황화합물이 연간 6만3000t정도 감소하는 등 공장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종질유에서 전환되는 고부가가치 경질유를 수출해 연간 4000억원의 수익 증가도 기대된다.

허동수 GS칼텍스(주) 회장은 "지속적인 고도화 설비투자를 통해 친환경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해 앞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금호·쌍촌·하남 영구임대아파트

162억 주거환경 개선 마무리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금호·쌍촌·하남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 증진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이들 영구임대아파트는 1990년대 초반 지어진 것으로, 광주도시공사가 아파트 내 방치해왔던 개인 및 공공시설을 개선하거나 또는 신규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광주도시공사는 10일 "지난 2009년부터 총사업비 162억을 투입한 광주소재 3개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

경복지 증진사업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에는 129억5000만원으로 세대 도배장판 및 싱크대 및 복도 창호 교체, 단지 내 CCTV 설치, 어린이놀이터 정비, 세대별 냉·난방기 교체 등을, 지난해부터 지난해까지는 32억4900만원으로 사회복지관 개·보수, 장애인승강기 설치, 단지 내 가로등(LED)교체, 세대 출입문 교체, 화장실 개·보수에 나섰다.

도시공사 측은 정부 국책사업으로 주

진하고 있는 그린 홈(Green home) 사업도 적용해 이들 아파트단지에 세대 발코니 창호 교체, 콘덴싱 보일러 설치 등도 계획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호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 송모(여·62)씨는 "20년 동안 써와 낡은 도배 장판과 싱크대는 물론 고장이 잦던 세대출입문까지 교체해 귀 너무 감사하다"며 "화장실까지 고쳐줘 새 집이 된 듯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광주도시공사사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주거복지증진사업의 효과를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시설물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든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LH 광주·전남본부 다가구주택 450가구 매입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올해 450가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다가구주택 매입 대상은 광주지역 430가구와 목포지역 20가구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인 감정을 거쳐 매입한다.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50㎡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는 방 3기에 따라 8만~10만원으로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다. 문의는 LH콜센터 1600-7100. /*박정욱기자 jwpark@

익산국토청 설계자문위원회 IT·디자인·경관까지 확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평)이 전국 지방청 가운데 처음으로 IT와 디자인·경관 분야까지 설계자문위원회를 확대해 건설 품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익산국토청은 10일 "도로 등 기술 분야에만 한정했던 설계자문위원회를 올해부터 IT·디자인·경관·품질·환경 등 5개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임기 2년의 설계자문위원회 20개 분야 248명을 위촉했다. 신설된 5개 분야에도 IT 5명과 디자인·경관·품질·환경 각각 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에 따라 익산국토청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 설계·시공에 대한 예방기능이 강화돼 건설 품질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 특수교량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 및 심의가 가능해져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교량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지앤알, 경영정상화 기틀 마련

특히 2건 취득...태양광 사업에 역점

광주지역 태양광발전시스템 전문기업인 (주)지앤알은 10일 사모신주인수권부 사채(BW) 발행으로 10억원의 성공적으로 납입, 안정적인 경영기반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앤알은 이로써 자금 유동성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구조조정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경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 또 기존 경영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새로 태양광 사업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 임원과 신규 사업 목적 추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앤알은 또 이날 태양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관련 특허권 2

건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조명과 난방·온수, 급탕 및 전력을 태양에너지로 통해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전설장치'와 '태양광 채광장치의 발전용 엔드 팁(End Tip)'에 관련된 기술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가정이나 상업용 건물 및 공장, 화력 하우스 등에서 경제성 있는 통합 시스템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엔드 팁을 장착하고 탈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 빛에너지에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로 변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아시아나항공 매출·영업이익 사상 최대

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이 지난해 항공수요 급증에 힘입어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0일 지난해 매출 5조726억원, 영업이익 6357억원, 당기순이익 236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0.5% 증가하며 창사 이래 첫 5조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도 2009년 2367억원 손실에서 지난해 흑자로 돌아서며 최대 실적을 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한 1조2816억원, 영업이익은 147.2% 늘어

1037억원을 기록했다.

여객은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 내국인 출국자의 수요 회복과 중국인 비자발급 완화, 미국 비자면제 효과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수송실적이 대폭 늘었다. 화물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IT) 품목 및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항공화물 수송량이 증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사업계획으로 매출 5조5000억원, 영업이익 6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2,008.50 (-37.08)
코스닥지수	522.70 (-3.04)
금리 (국고채 3년)	3.96% (-0.04)
원·달러 환율	1,117.00원 (+8.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신협 광주전남본부 '최우수' 10일 오후 신협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본부장 진승현)가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2010년 사업평가 및 2011년 사업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비아신협이 지난해 종합업적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전국 신협 종합업적평가에서 4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해 경영평가 최우수지역본부에 선정됐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우리금융 회장에 이팔성·김우석씨 지원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공모에 이팔성 현 회장과 김우석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지원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우리금융 회장 공모에 이 회장과 김 전 사장, 김은상 삼정KPMG 부회장과 총 4명이 지원서를 냈다. 나머지 한 명은 경영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우

리금융 회장 후보는 3명이다. 그동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강만수 대우증권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응모하지 않았다.

우리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인터뷰 등을 거쳐 2월 말까지 단독 후보를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 기존의 습기제거 기능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광자외선을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케모르케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